



“살빼고 찌우고 ... 역할 몰입위해 노력했죠”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김남길 호흡

범죄 스릴러 소설 각색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 출연한 설경구는 8일 “노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극도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GV압구정에서 열린 ‘살인자의 기억법’ 제작보고회에서 “과거 특수분장을 해보기도 했지만 연기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살을 빼는 방법을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개봉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은 김영하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범죄 스릴러 영화다. 과거 연쇄 살인범이었던 병수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뒤 사라져 가는 기억과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설경구는 원작 소설에 70대 노인으로 나오는 병수역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두 시간씩 줄넘기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자제하면서 살을 뺐다고 한다.

그는 “68kg까지 뺀 뒤에는 몸무게를 재지 않아 정확하게 얼마나 감량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강력한 몸무게를 활용 중 유지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경찰 대주역을 맡아 설경구와 호흡을 맞춘 김남길은 반대로 캐릭터를 위해 14kg을 찌웠다고 한다.

그는 “살을 찌워서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서늘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감독님의 말씀에 살을 찌웠다”며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쉽지 않았



배우 설경구(왼쪽)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제작보고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김남길이는 말은 경장 태주는 병수가 우연히 접촉사고로 만나게 된 인물로, 병수는 자신과 닮은 그의 눈빛을 보고 그를 살인범이라고 직감한다.

김남길은 “악역일 수도 있고 악역이 아닐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캐릭터”라며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를 모델로 삼았다. 슬픔과 고독, 회한 등 여러 가지가 담긴 그의 눈빛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수의 딸 은희 역은 걸그룹 AOA 멤버이기도 한 설현이 맡았으며, 오달수가 연쇄살인범을 쫓는 파출소 소장으로 출연한다.

‘강남 1970’에 이어 2년 만에 스크린 도전에 나선 설현은 “피로 얼룩진 분장을 하고 산에서 맨발로 뛰어들고 흙에서 뒹구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서 하루하루 도전하는 느낌으로 촬영했다”며 “그동안 나 스스로 만들어왔던 고정된 이미지를 다 내려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원신연 감독은 설현에 대해 “백도화지 같은 배우”라며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고 추켜세웠다.

‘세븐 데이즈’, ‘용의자’ 등을 만들었던 원 감독은 원작 소설을 40분 만에 읽고 영화화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원작은 장르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주제적으로 깊이가 있고 서스펜스와 결합한 유머, 빠른 호흡, 휘몰아치는 구성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며 “영화는 캐릭터와 설정에 변화를 줘 소설을 읽은 분도, 읽지 않은 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류승완 감독·강혜정 대표 영화협회 탈퇴

‘군함도’ 독과점 논란 여파

영화 ‘군함도’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사진)과 제작사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가 최근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계의 각종 협회를 탈퇴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부부인 두 사람은 최근 영화감독협회, 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여성영화인모임 등 두 사람이 속한 모든 협회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강 대표는 탈퇴 이유에 대해 연합뉴스에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종 협회를 통해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두 사람이 협회를 탈퇴한 것은 최근 ‘군함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영화계는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탈출을 그린 ‘군함도’는 CJ E&M이 배급을 맡아 지난 7월 26일 역대 최대인 20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개봉됐다. 이 때문에 개봉하자마자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류 감독이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터라 류 감독을 향한 세간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이에 류 감독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름



시즌이면 반복되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제가 만든 영화가 서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류 감독의 한 지인은 “‘군함도’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하다”고 말했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협회 등이 나서서 류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군함도’는 지난 7일까지 총 관객 617만 5539명을 불러모았다. 이 영화의 총 제작비는 약 260억원으로, 700만명을 동원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 /연합뉴스

MBC ‘보그맘’ 양동근·박한별 출연

시트콤 드라마 ... 내달 첫 방영

배우 양동근과 박한별이 주연을 맡은 MBC TV 드라마 ‘보그맘’이 다음 달 첫 방송한다.

MBC는 ‘보그맘’을 시트콤 성격의 드라마로 소개하며 “사이보그 엄마가 아들이 다니는 고급 유치원의 학부모 사조직에 입성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유머 코드와 함께 엄마들의 지나친 치맛바람과 사교성 풍토 등도 꼬집겠다는 계획이다.

양동근은 보그맘을 개발한 최고봉 박사를, 박한별은 보그맘 역할을 맡는다. 학부모 사조직을 구성하는 엄마들 역할은 최여진, 황보라, 아이비, 정이랑이 하며 그들



양동근과 박한별

유엔(UN) 출신의 최정원과 넷째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자였던 권현빈도 출연한다. 시트콤 성격의 드라마답게 연출은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등을 연출한 신혜운 PD가 맡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떠나면 보인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그레이트 리잔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속보이는TV 인사이트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황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죽어야 사는 남자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여름방학특선 애니메이션 뱅글스쿨		30 령킹쇼 1.2.3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프리파라 2 55 별벌머드리	00 뉴스브리핑
3	10 여름휴가에 읽으면 좋은 고전 시리즈 서가식당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자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령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크'10' 55 숨터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빅 아이디어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중국 자취 기행 - 푸젠, 차의세계화>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독막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얼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불닭찜과 귀뚜라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이해 - 자연 이해의 바탕 관념>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놀리 17:45 독막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어벤저스: 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여울로 가는 길 뉴질랜드 - 전설의 길 숲의 정령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영물찾아 삼만리 - 황금여왕이 열렸다 임자도> 21:50 EBS 다큐프라임 <원령공주의 땅 아쿠시마> 22:45 극한직업 <페르 대왕오징어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60년생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라. 72년생 실행해 두고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제가 될 수도 있다. 84년생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07, 12	午	42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54년생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66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78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가자. 90년생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명심하자. 행운의 숫자 : 41, 03
丑	49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61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73년생 행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다. 85년생 승인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4, 91	未	43년생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맞다. 55년생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옳다. 67년생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79년생 손에 땀을 쥐게 지켜봐야 할 일이다. 91년생 하심탄화한 토로가 풍포를 제거 해리라. 행운의 숫자 : 91, 77
寅	50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케 하는 이로움이 보인다. 62년생 전해들은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음을 알자. 74년생 사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니 차근차근 행하자. 86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54	申	44년생 주의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6년생 지나치다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울만 더한다. 68년생 긍정적인 희소식이 올 것이다. 80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75, 13
卯	51년생 어느 누가 보아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63년생 우선 협처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돈은 보이나 잘 돌지 않아서 문제이다. 87년생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87	酉	45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57년생 한시를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기다이 잡힐 것이다. 69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81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27, 08
辰	52년생 게을리 하다보면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 64년생 만사는 상대적일 수 있으니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나라. 76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88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2, 09	戌	46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58년생 형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70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82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2, 04
巳	53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부터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65년생 교육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77년생 일시적인 정황일 뿐이니 과념할 필요는 없다. 89년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46, 05	亥	47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59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1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83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83, 0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